축복 분량의 측정기준

(창49:1~33)

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복 분량의 측정 기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축복 분량의 측정 기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되고, 읽지 않은 부분을 보면 아버지로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이상합니다.
내용을 보면 분명히 축복을 해준다는 뜻의 Blessing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에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한 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축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서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 경우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축복이 우리가 아는 대로라면 성경을 통해 소개된 르우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과오를 꺼냅니다.
3-4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합니다.
축복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결국은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서모 빌하를 범한 일이 몇십 년 전인데 임종 직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굳이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죽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더군다나 르우벤이 장자였고 열두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 축복을 해준다고 불러놓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에 대해서는, 세겜의 대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으므로 복을 빌어주기 위해 축복을 의도하고 입을 열었는데, 우리가 믿는 대로 성령에 감동된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렇게 저주로 나왔고, 르우벤에게서는 일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잘못과 수치스러운 오류를 드러냅니다.
열두 명 중에서 내용이 괜찮고 푸짐하다고 하는 것은 유다와 요셉 밖에는 없어요.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같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 수 없는 유형이 있고, 축복은 축복이되 너무 간지럽고 작은 축복의 유형이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라고 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해변에 산다는 것이 무슨 축복이라고까지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잇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고 합니다.
단은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와 같은 부류로서 16-17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 단은 길섶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심판하는 자인데 뱀으로 비유하면서, 단과 자신을 구분하여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합니다.
단은 심판자로 살아가면서 길섶에 숨어있던 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발굽을 무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자신은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참 요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열두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미래에 각 지파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예언적인 요소가 없진 않지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절되면서 다 흩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적으로 볼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파들이 없고, 예언적으로 봐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유다의 경우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라고 볼 때에 맞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의 경우에는 축복을 받아서 에브라임지파가 결국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지파가 되었다가 북 왕국은 남 왕국 유다보다 먼저 망합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대로 각 지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언에 초점을 돌리면, 어차피 야곱의 축복이 열두 아들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제 야곱과 요셉이 죽고 나면 무려 400년 동안 열두 지파가 동일하게 노예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열두 아들 자신들에게 대단한 문제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미래적, 예언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두 아들을 낳고 기르고 함께 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에 대한 느낌과 깨달음에 대해 147년 생애의 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야곱의 축복관이 있는데, 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점이 있고, 그 관점을 따라서 열두 아들의 분량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147년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끄셔서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에 생기는 복에 대한 관점이 있어서, 바로 왕에게 갔을 때에도 이 세상 모든 복이 모이고 쌓인 곳의 꼭대기에 앉은 자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나오는 사람이 되면서, 아들들이 이 복을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47년 동안 야곱의 생애에 대해 간섭하시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야곱의 마음에 생긴 축복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축복관이 무엇이기에 열두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며, 어떤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려 했는데도 오히려 저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만드는 축복관이 무엇이며, 각 사람에게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분량(그릇)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 분량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아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분량대로 분명히 축복을 의도 했는데 저주처럼 나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분량이기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까?
이제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이고, 오늘 49장은 창세기의 전체 분량이 여기에서 총집합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축복 분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

엇인지 창세기를 요약하므로, 이 축복 분량의 측정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나오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영원한 명문이고,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하시면서 창조 이야기가 시작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축복 측정 기준을 찾아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알아봅니다.
한 가지 물어 봅니다.
창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에서 복의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왜 복의 개념이냐 하면,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꽉 차도록 만족함이 느껴지고 기쁨에 휩싸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마음이 만족하고 마음이 채워지고 그것이 지속될 때에 기쁨이 나오는 그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은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고 두 단어가 합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축복은 사람을 행복하게 복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것이고, 행복은 빈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만족과 기쁨’이라는 두 단어를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고 만족은 사랑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에 나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에 기쁨이 나오고, 내가 아들을 사랑하면 그 아들의 일이 잘 될 때에 기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들 예수님으로 채우고 계시다는 것이고,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만족하신다는 것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하고 기쁜 것이고, 복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복은 은하계보다 태양계보다 우주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시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라고

하십니다.
‘창세 전에’
복은 원래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만족하고 기쁜 상태가 행복인데, 그 복은 창조 이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는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아들 예수님이 복이셨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복이셨으므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시고 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부터 복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아버지가 예수님께 복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아버지께 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속에 들어간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신 하나님아버지가 성령님이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지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이 계획 속에 생겼는데 그곳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곳으로 복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피조의 세계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디자인하셔서 그 혼돈과 공허 속에 당신의 생각을 훅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이 바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원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만 있는 것이었고, 그 외의 영역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이 받아들여지는 곳마다 질서가 생기고 복 자체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인 복의 결정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예쁘잖아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복이 연장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창1: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 입니까?
원래 복은 인간이 만들어진 이 세상 속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돈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품차도 있고 명품아파트도 있고 명품백도 있고, 육체가 이 세상에 있으니 건강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은 다 복이 아니고 원래 복은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는 복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시는 복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이 복의 내용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 주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진짜 영원 전부터 있었던 복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돈이 있지만 복이 아니고, 권력이 있지만 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복이 아닙니다. 원래 복은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복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연합해서 복을 누리고 복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것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습니다. 내가 주체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주체성이 거부되므로 복이 물러가고 내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으로 빠지면서 우울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에덴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축복의 측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축복의 기준은 내 주체성을 얼마나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늘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주님이 복이십니다. 그 외에는 복이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애인으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세느강에 있다면 그만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인과 싸우고 헤어진 후에 세느강을 간다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좋다고요? 돈이 진짜 좋은 줄을 알려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상태에서 돈을 만질 때에 애인과 함께 있는 세느강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 아름다운 세느강이 되는데, 하나님과 결별한 상태에서의 세느강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빨아들이고 삼켜버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향하여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끓듯이 끓어서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욕구와 소원이 넘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눌러져야 하늘에 있는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에 의해서 악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체성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하는 단의 모습을 독사로 비유하면서, 야곱 자신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단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같이 나온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창세기 전체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현실 전부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데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이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므로 기쁘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죽으신 죽음이 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문제 많고 근심 많던 모든 현실들이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이시고 그 표현 속에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축복 분량의 측정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나 요셉의 내용을 보면, 유다는 자기의 주체성을 부인해야 될 필요성을 어느 형제들보다도 앞서서 느껴가는 존재였고, 요셉은 자기의 주체성이 이미 부인되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의 축복을 비교해보세요.
요셉에게는 24절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라는 말을 했고, 유다에게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축복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고 있음을 알려 주고, 그 유다의 혈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다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명예가 없다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원래 하늘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이 땅의 것으로 채우면 기쁘리라고 믿게 된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축복의 분량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의해서 결

정된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얼마나 매순간 선악과를 토해내느냐는 것입니다.
즉, 내 주체성을 얼마나 발휘하지 않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보고 따먹은 것을 거꾸로 해서,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죽음을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얼마나 많이 따먹느냐가 축복의 분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따먹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순간 15분, 30분, 1시간 동안만 따먹고 있으면 축복의 분량은 1/24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만이라면 더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량은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죽음을 먹지 않은 한, 하나님의 주체성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개입하지 못하시고 우리 삶의 바깥에서 역사합니다.
유다와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라도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 주체성이 절대적으로 부인되어야 된다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이지, 적극적 긍정적으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축복 분량의 측정 기준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먹느냐 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삶는 과정으로 죽여서 먹고, 고기도 동물을 죽여서 먹고, 살아있는 배추를 뽑아서 소금에 절여 죽여서 김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음식이 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주체성이 많이 들어와서 축복 분량이 커지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많이 들어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물은 세상에 수억만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체성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 그 주체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이야기는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복이시고 주님이 복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량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따먹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죽음을 먹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주체적이 됩니다. 주님을 따먹으면 내 주체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 그 밥 기운이 24시간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24시간 주님의 죽음의 기운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체성이 죽어버릴 때에 축복 분량의 극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 몇 시간을 먹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축복 분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축복 분량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모양이 어떻든지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누릴 수는 없더라도 그 무한하심을 향하여 계속 확장되어 가는 축복의 분량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